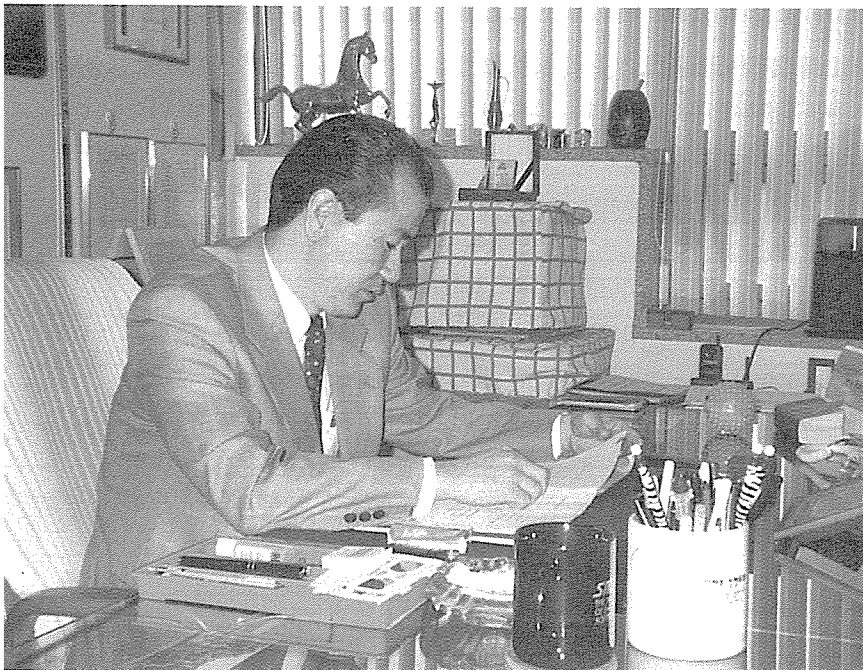




공장자동화 위한 센서·바코드 개발 <주>현암엔지니어링

공장자동화를 위한 센서와 바코드 관련제품을 개발해 관심을 모으고 있는 <주>현암엔지니어링은 91년 일본회사와 합작으로 설립되어 현재 6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3억원을 투자해 개발한 리딩시스템으로 9백억원 정도의 외화를 막는데 기여했고 앞으로 물류 및 사무자동화는 물론 홈오토메이션을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다.

▼ 공장자동화, 생산자동화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물류자동화, 사무자동화, 홈오토메이션을 실현시키는 것이 꿈이라고 밝히는 임승암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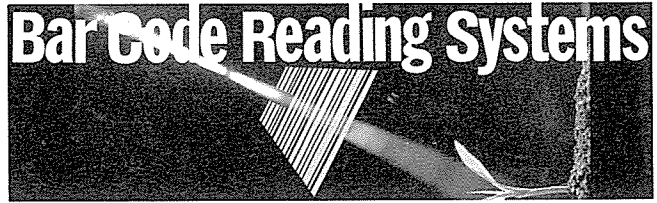
공상과학영화에만 등장했을 법한 바코드가 이제는 생활 주변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급속히 보급되었다. 그러나 이런 바코드시장은 미국, 일본 등 외국제품이 대부분이어서 이들만의 전유물로 여겨진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바코드를 읽을 수 있는 리딩시스템(Reading System)을 자체 개발해 수입에만 의존했던 바코드시장에 제동을 건 기업이 있어 업계에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화제의 기업은 은평구 갈현동의 조용한 주택가에 자리한 주식회사 현암엔지니어링(대표: 林松岩).

일본과 합작 ... 91년에 出帆

<주>현암엔지니어링은 1991년 <주>현암바씨스(1989년 설립)와 일본의 자동인식산업분야에 약 7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TOHKEN사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인 기술투자 합자법인으로 국내의 자동인식산업에 일익을 담당하기 위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이다. 바코드시스템의 연구, 개발, 생산을 주요 설립 목적으로 공장 및 사무자동화를 위한 각종 산업용 기계제작 및 설계를 주로 취급하는 바코드시스템 전문회사인 것이다.

이 회사의 창업자인 임사장은 대학때 경영학을 전공한 평범한 대학생이었지만 미국으로 유학을 가면서 전공을 컴퓨터 과학으로 바꾸고 미국 「포춘」지가 선정하는 재벌기업 순위에서 공장자동화 인식분야 관련업체가 매년 상위에 랭킹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21세기에는 로봇 센서가 각광을 받게 될 것이라는 확신으로 이분야에 뛰어들 것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한다. 학생때는 순수한 과학자가 되는 것이 꿈이어서 이처럼 중소기업을 직접 운영하는 오너가 되는 것을 상상해본 일이 없었지만 그는 자동인식기술연구조합 초대 이사장으로 추대될만큼 탁월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 타고난 경영자라는게 주위의 평이다.

현암바씨스와 현암엔지니어링이 개발해 낸 제품은 공장자동화를 위한 센서와 바코드 관련제품이다. 95년 개발해 언론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모으기도 했던 리딩시스템인 TLMS-110V/ TBR-



용생산공장인 아산 제2공장 자동화 생산 라인에는 국내 최초로 주문에서 생산까지 모든 정보를 종이 없이 컴퓨터로 전달

링의 직업연수원이 바로 홈오토메이션으로 설계된 첫 작품이라고 한다.

현재 현암엔지니어링은 6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고 올 목표는 1백억원이라고 당당히 포부를 밝히는 임사장. 하지만 한때 현암엔지니어링도 다른 제조 중소기업이 그렇듯이 자금난과 인력난으로 허덕이던 시절이 있었다고 한다.

한번은 사무실을 은평구로 막 이전했을 때 사무실 정비가 채 못된 상태에서 한 여직원 면접을 보았는데 합격 통보해도 오지 않자 그 이유를 나중에 물어보니 사무실도 슬렁하고 책상도 제대로 없어 꼭 인신매매단 같더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자금난으로 인력난으로 힘들 때도 임사장은 오히려 수업료를 내고 경영을 배운다는 마음가짐으로 오히려 품질개발과 A/S에 더욱 신경을 썼다고 한다. 보통 대기업의 R&D 수준이 10% 내외지만 현암엔지니어링의 R&D는 얼마라고 측정해 놓지 않는다고 한다. 직원이 연구개발에 꼭 필요하다는 보고가 있을 때는 그 자리에서 결재를 할 때도 많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생명은 뒤통수라도 이 담긴 제품을 만들어 내고 철저한 A/S라고 강조하는 임사장은 바코드와 자동인식분야야말로 중소기업형에 딱 들어맞는 제품으로 신기술 개발과 끊임 없는 노력으로 국민이 보다 편히 살 수 있는 자동화 세상을 앞당기는데 일조를 하는게 꿈이라 한다.

(<하정실/본지 객원기자>)

▲ 바코드를 읽어주는 「Reading System」

110D는 가시광 반도체 레이저를 광원으로 이용하고, 스캐너(scanner)부를 초소형으로 설계한 부리형 바코드 리더이다. 정확히 해독했을 때에는 GO,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NG신호를 출력시키고 스캐너부는 방진구조로 되어 있으며 소형이어서 자동기 등의 편성용으로는 최첨단이란 평을 듣기도 한 제품이다.

리딩시스템 外貨 9백억원 절감

현암엔지니어링은 팀장으로 이 연구 개발에 직접 참여한 임사장을 비롯한 5명이 3억원을 투자하여 1년 정도의 개발기간을 거쳐 개발해낸 이 리딩시스템으로 9백억원 정도의 수입대체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향후 1천억, 2천억의 대체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자동인식부분에 있어서도 국내 3사 자동차 자동화 생산라인에서 데이터를 인 아웃(data-in-out)시키는 DIO 컨트롤러 기계를 이용하여 작업투여나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과 작업지시, 하자발생시 투여되는 모든 시점을 관리하는 POP(point of product)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현암엔지니어링이 앞장선 것이다. 특히 기아자동차의 크레도스 전

하는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모니터링시스템을 현암엔지니어링과 같은 중소기업에서 자체 개발해 냈다는건 참으로 높이 살만한 쾌거가 아닐 수 없다고 임사장은 자랑스럽게 말한다.

이외에도 삼성반도체공장 생산라인에 최첨단 자동화센서에서부터 일반 회사에서 종업원의 출퇴근을 관리하는 타임체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을 개발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임사장의 꿈은 공장자동화와 생산자동화뿐 아니라 더 나아가 물류자동화와 사무자동화 심지어는 홈오토메이션을 실현시키는 것으로 다양한 분야의 자동인식기 생산제조업체로 발돋움하는 것이라고 한다.

앞으로 홈오토메이션에 도전

홈오토메이션을 구상하고 있는 임사장은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선 집안에 있는 모든 불과 TV, 가스레인지, 커튼, 현관문 등이 자동으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선 50개 이상의 센서가 필요한데 만일 홈오토메이션화된 아파트 단지를 하나 조성한다고 해도 한 포인트의 센서가격이 보통 백만원대니까 그 시장도 넓다는 것이 임사장의 예측이다. 올 3월말 완공을 앞두고 있는 현암엔지니어